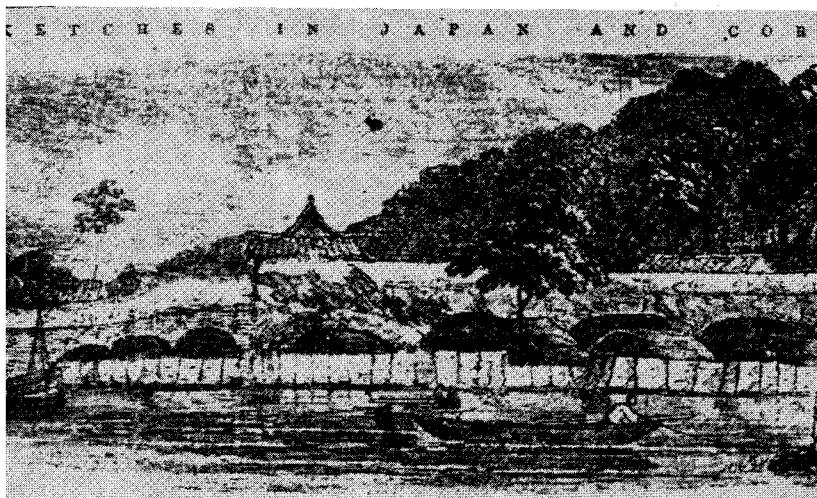


부산항에 온 초기의 서양인들

1859년 '와드' 일행의 부산항 조사는 당시로서 거의 완벽한 것으로 부산항을 찾아오려는 뱃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이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항이 전세계에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韓 相 復〈國立水産振興院 海洋科長·理博〉



〈그림 1〉 1855년 9월 스케치된 부산항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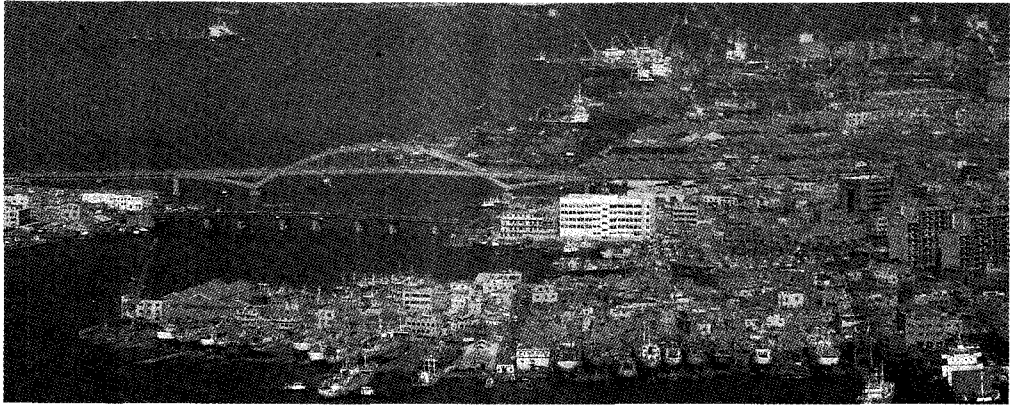
부산항은 항구이다. 항구라도 국제적인 항구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곳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데는 이곳에 왔던 서양인들의 업적이 대단히 컸다. 왔다 가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못했으면 오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기록을 중심으로 부산항에 정박했던 서양 선박들을 찾아 보았다.

1860년대 이후에는 부산이 널리 알려지고 또 서양의 배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왔으므로 1850년대 이전의 시기만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이들을 초기의 방문객으로 정의하니 3가지 경우가 된다.

첫번째는 영국의 '브로우튼

부산항은
항구이다.
항구라도
국제적인
항구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기도
하다.



(William Robert Broughton, 1762~1821)' 일행이 1797년 찾아온 것이고, 두번째가 1855년 Nankin호(南京號)의 방문이며, 마지막으로 1859년 '워드(John Ward)' 일행이 악테온(Actaeon)호를 타고 온 것이다. 이들을 차례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브로우튼'의 방문

영국해군인 '브로우튼' 일행이 부산의 용당포에 닿을 내린 것은 1797년 10월 13일 저녁이었다. 일행이라야 총 35명이었고 타고온 배도 87톤급의 조그만 스쿠너선이다. 일반적으로 4백톤급의 슬루프형 포함인 '프로비던스(H. M. S. Providence)'호를 타고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브로우튼' 일행이 1795년 영국을 떠날 때는 '프로

비던스'호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797년 5월 문제의 '프로비던스'호는 류우쿠우열도의 산호초에 난파되어 그들은 할 수 없이 87톤급의 소형스쿠너선을 타고 항해를 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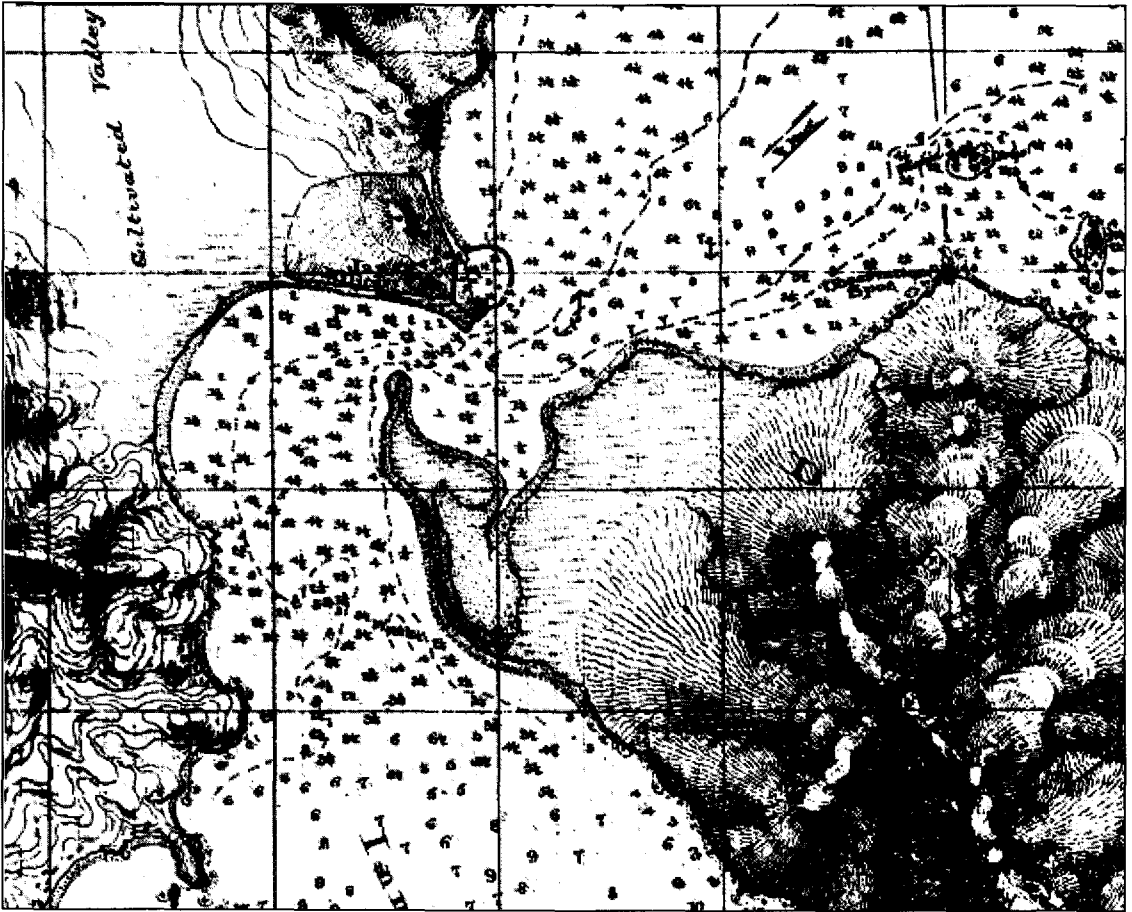
'브로우튼' 일행은 부산항에 대한 어떠한 사전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서양사람으로 부산에 왔다가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또 필자가 각종 자료를 모두 찾아보아도 부산항에 상륙하거나 도착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브로우튼' 일행은 운 좋게도 부산항을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이 된다. 그들은 우리나라 동해안을 북에서 남으로 조사해 오다가 물과 뿔감을 구하려고 우연히 들른 곳이 바로 부산항 용당포 앞바다였다. 일행은 두달동안의 연속적인 동북아시아 탐험 항해로 피로

에 지쳐있기도 했다.

10월 21일 부산항을 떠날 때까지 조선관리들의 친절로 식수와 뿔나무를 무료로 공급받으면서 '브로우튼' 일행은 부산항을 개략적으로 측량하고 위도와 경도도 측정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들은 조선관리들과만 접촉했고 초량왜관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

부산항의 남쪽 입구인 상이말의 위치가 북위 35도 2분, 동경 129도 7분 7초였으며 자침의 편차는 서쪽으로 2도 8분 기울어 지는 것을 조사하여 전세계 항해가들에게 부산항의 좋은 자연조건과 함께 인심좋은 주민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려 주었다. '브로우튼'은 부산항을 '조선항(Chosan Harbour)'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알린 공로자이며 그는 1804년 「북태평양 탐험항해기(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를 출판



〈그림 2〉 1859년 6월 측량된 부산항(일부)

하여 그의 탐험결과를 공표했다.

런던에서 출판된 이 책은 총 3백93페이지이며 9장의 해도 및 도면이 더 첨가된다. 부산항의 설명은 물론 항박도와 항구입구의 측면도가 있으며 부록으로 부산에 머문동안 채록한 38개의 우리말 어휘와 부산에서 자라는 26가지의 채소 또는 식물이름을 실어놓고 있어서 부산항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남경호의 방문

남경호(Nankin, 南京)가 부산에 닿을 내린 것은 1855년 9월이며 이것 역시 영국해군 함정이었다. 이들이 부산에 도착하여 조사한 일이 거의 없어서 1861년 출판된 「중국 수로지(China Pilot)」 제3판의 3백 80페이지에 있는 부산항을

설명하는 항에 간단히 소개되고 있다. 남경호의 기록에 의하면 부산항은 식수를 보급받기에 편리한 곳이나 남동풍이 강할때 너울이 크게 일어난다고 했다.

남경호는 초량왜관에 정박하여 왜관모습을 스케치했는데 이 그림이 런던에서 발행되는 「이류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Illustrated London News)」의 1858년 4월 24일자에 <그

림 1)처럼 선을 보이고 있다.

‘와드’ 일행의 방문

영국군함 ‘악테온(Actaeon)’호가 ‘와드(John Ward)’ 함장의 지휘로 부산항에 도착한 것은 1859년 6월 9일이다. 승무원이 1백여명이나 되었고 대포도 26문이나 되었다. 이들은 1797년 ‘브로우튼’이 대략적으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부산항에 의식적으로 찾아온 것이다. 부산항을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항박도를 작성하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었다.

영국은 이미 일본과 국교가 맺어져서 이들은 초량왜관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부산항의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항박도를 작성하였다. 초량왜관을 ‘일본군 주둔지(Japanese Military Station)’로 인식했으며 부산항도 ‘초량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영도도 ‘디어 아일랜드(Deer Island)’라 하였다.

‘악테온’ 호에는 ‘베드웰(Bed-well)’이라는 화가가 있어서 왜관에 문정온 훈도의 모습도 사실대로 그렸고 먼 발치에서 잠깐 본 여인의 모습도 스케치해서 당시 우리의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악테온’ 호는 1856년 영국을 떠날때 부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해역의 정확한 수로(水路)를 알아오라는 기본임무를 부여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탐사결과는 즉시 보고되어 배가 귀향한 1861년 이전인 1860년 부산항 해도가 영국해군성에 의하여 출판되었고 항해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그림 2〉는 1859년 ‘와드’ 일행이 부산항을 측량한 것의 일부인데 수심은 패덤(1.8m) 단위로 나타나 있다. ‘와드’의 조사결과로 부산항은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1860년대 이후에 많은 서양선박이 찾아

**‘와드’의
조사결과로 부산항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1860년대 이후
많은 서양 선박이
찾아와 문호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계기를
맞아했다**

와서 문호개방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또 이들의 탐사여행기가 1902년 ‘블랙크니(Blakeney)’에 의하여 「40여년전 중국과 일본의 해안(On the Coasts of Cathay and Gipango Forty Years Ago)」로 출판되었다.

‘블랙크니’는 1902년을 기준으로 하여 40여년전에 그가 참가한 ‘악테온’ 호의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했으며 이때 ‘악테온’ 호의 부속선 ‘도브(Dove)’ 호도 함께 왔었다. ‘블랙크니’는 ‘악테온’ 호의 경리담당 장교로 탐사활동에 참가했었다. 그는 이 책을 영국과 일본간 협력관계에 공헌한 ‘이토 히로부미’에게 증정한 것이므로 일본중심으로 동북아시아가 설명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가 굿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옛날 명칭으로 중국(Cathay)과 일본(Gipango)을 제목으로 뽑았는가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찌했건 1859년 ‘와드’ 일행의 부산항 조사는 당시로서 거의 완벽한 것으로 부산항을 찾아오려는 뱃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이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항이 전세계에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㉔